

W.B. Yeats의 Byzantium Poetry 研究序說

박 성 수
영 어 영 문 학 과
(1984. 9.29 접수)

〈요 약〉

W.B. Yeats는 후기에 접어들어 크기의 낭만적인 경향을 벗어나 초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의 대립에서 오는 인간의 내적 갈등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즉, 노년에 접어들어 그의 현실 감각은 더욱 투철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 본연의 문세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후기시의 주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는 절충이 왕존하는 現實世界에서 퇴락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意志의 힘으로 강력하게 현실에 도전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또 다른 갈등을 모색하는, 말하자면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세로 자신의 예술에 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예술은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의 긴장이 첨예화되고 자신의 意識이 기갈 질저했을 때 더욱 깊이를 더 해 갔다고 하겠다.

Byzantium poetry는 바로 이러한 심청아래서 쓰여 졌으며 현실세계의 갈등을 강력한 정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직물을 영원한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Yeats의 예술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ailing to Byzantium'과 'Byzantium' 두편의 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Yeats의 후기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불멸을 갈망하는 인간의 本能은 늘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예술 창조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으로 나타나며 Yeats도 이 끊임없는 內的 意志로 자신의 예술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를 추구했던 것이다. 우리는 Byzantium poetry에서 realist로서의 Yeats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으며, 그는 항상 자신이라는 현실을 밑천으로 좀 더 높은 지아를 추구하는 자세로 자신의 詩的 창조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그 범위를 넓혀 갔던 것이다.

On W.B. Yeats's Byzantium Poetry

Park Seong Soo

Dep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Received September 29, 1984)

〈Abstract〉

W.B. Yeats in his later times was deeply concerned with the antithesis between the supernatural and the human. His concerning with it accounts for much of the complexity of his later verses. In other words, his sense of reality becomes deeper as he grows old.

But he neither escapes nor is frustrated from the present situation he faces where there always exists conflict between the two extremities such as nature and art, youth and age, and body and soul. On the contrary he eagerly wants to challenge the present situation he is forced to face with a strong will. By doing so he can not only solve the conflict but also overcome reality. He writes poems in the attitude of overcoming reality. So we can say that the tighter the conflict between his real world and the ideal world is, the more profound the depth of his

art becomes.

Byzantium poetry was written in this situation and they show Yeats's strenuous will to overcome reality with a strong spiritual power and to make his art eternal.

The human instinct and desire for immortality may be the original vitality for art, and so Yeats wants to make his works of art sublimated with such instinct and desire for pursuing immoral art.

We can evaluate Yeats as a realist in the sense that he continuously tries to pursue his poetic possibility and widen poetic scope with the intention of overcoming the given situation.

I

William Butler Yeats(1865~1939)의 詩世界를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우리는 보통 그의 詩를 초기의 낭만주의적 색채를 다분히 지닌 시들과 후기에 들어서 립신에 눈을 돌려 인간 본연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쓴 시들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의 詩에서 'Celtic twilight' 속에서 조국 Ireland를 사랑하는 한 낭만적 기질을 지닌 젊은 시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Yeats는 세기가 바뀔 20C 초부터는 Irish theme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예술에서의 人生과 현실 문제, 인간 본연의 모습(특히 자신의 모습) 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04년에 발표된 詩集 *In the Seven Woods*나 1910년에 출간된 또 다른 詩集 *The Green Helmet and Other Poems*에서 구나 후기시의 모습과 특징이 서서히 나타나다가 특히 1914년에 출간된 *Responsibilities*에서 본격적으로 립신 감각에 투철한 시인으로서의 Yeats의 모습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시작(詩作)에 임한 후기의 시에서 더욱 심숙한 Yeats의 사상 및 인생과 예술에 관한 그의 태도를 잘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후기의 개념은 어떤 연대적인 구분이라기 보다는 Yeats의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그 자신의 예술관 내지 인생관의 범모에 따른 대체적인 구분이라고 하겠다. Richard Ellmann도 Yeats는 그의 초기시를 변형시켜서 후기시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¹⁾ 그러므로 Yeats의 詩世界에 대한 조망은 연대순으로 발

표된 그의 시적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는 데, 그것은 발표인대를 무시하고도 주제나 상징들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생명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個別的인 作品이 그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Yeats의 詩世界에서는 그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었을 때 더욱 더 생생한 감동과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Yeats는 초기·후기를 비론하고 의식적으로 詩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자신의 詩에 쏟아 넣었던 작가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양했던 자신의 경험이나 많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탐구했던 지적 능력과도 관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Yeats 자신은 시각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고를 계속하고 개작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에 완벽한 통일성(Unity)을 기할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는 1908년에 8월으로 된 수업을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hy I have been so insistent upon my revisions etc. in this expensive edition is that I know I must get my general personality and the total weight of my work into people's minds, as a preliminary to new work. I know that I have just reached a time when I can give up constant revisions but not till the old is right.⁽²⁾

이 글의 목적은 Yeats의 후기시를 이루고 있는 그의 예술관과 사상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 본 후, 그의 후기 시작품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두 편의 Byzantium poetry를 통하여 Yeats의 후기 시에 나타난 인생과 예술에 관한 그의 태도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Richard Ellmann, *The Identity of Yeats* (London, Faber and Faber, 1954), p.1.

(2) Recited from John Unterecker, *A Reader's Guide to W.B. Yeat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p.4.

II

Yeats의 진 작품을 고려하고 그의 代表性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그를 Symbolist 이면서 동시에 Realist 라고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시세계는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를 지배해 온 두 가지 중심 사상 즉 민족주의(Nationalism)와 신비주의(Occultism)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다사했던 생애와 더불어 그의 조국 Ireland 가 처해 있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또 한편 인생의 초년기부터 크게 심취했던 秘敎的인 철학이 초기시는 물론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詩作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특히 자신의 秘敎哲學을 체계화하여 발표한 *A Vision*(1925)은 Yeats의 사상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책이다. 그것은 자신의 사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신의 작품에 완전함을 기하러 애쓰는 Yeats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Realist로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감각에 투철한 고슴을 보여주는 Yeats의 후기시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표현한 시이다. 그의 후기시는 피안으로의 도피가 아닌 현실 속에서 더 높은 자아를 추구하고자 견뎌오는 詩人의 생생한 경험이 투영된 시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라는 불완전한 인간 존재의 현실을 발판으로 하여 藝術 世界로의 도약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詩란 內的 힘과 外的 힘의 대결에서 자신의 의식이 가장 철저히 승배 생긴 意志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그의 一生과 藝術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Maud Gonne 이 行動人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통해 존재의 극복을 시도하였다면 Yeats는 예술을 그 자신의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Yeats requires an art based upon affirmations, then by representing it as the expression of the fundamental urge of living beings to transcend themselves.⁽³⁾

즉 그의 詩的 思想이란 “나 자신을 詩에 담는다는 것”과 “경상적이며 정열적이며 事理를 분간하는 自

我, 즉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격(Unity of Being)”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詩作 과정은 이 사상을 추구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이며, “개인적인 정서의 강렬함을 속되지 않게 노출하는 것”과 “가사로운 슬픔을 一般的인 비애의 수준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인 것이다.⁽⁴⁾ 이러한 詩人과 作品과의 관계는 ‘Sailing to Byzantium’에서 나오는 ‘God’s holy fire’ 속의 상태와 같다. 이 속에서는 예술가와 예술작품(詩人과 詩)이 하나가 되며 예술가가 자신의 作品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것이 하나의 image 즉 ‘the Unity of Whole Being’의 모습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그 순간은 ‘extreme, fortuitous, personal moment’이며 詩人은 단지 이 순간에 자기의 경험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여 一致를 이룬다고 하겠다.

Giorgia Melchiori는 이 순간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Yeats에게서의 인생이란 모두 이 순간의 획득을 위해 바쳐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ll Yeats's life had been a pursuit of this Unity of Being to realize at this point that it can be achieved only momentarily.⁽⁵⁾

그러나 단지 순간적으로 이룩될 수 밖에 없는 이 ‘Unity of Being’을 향한 그의 노력은 가히 초인적인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그의 위대한 작품은 그러한 경험속에서 배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때는 그는 영원한 관념을 위해 현실의 삶을 버리려 했고 (‘The Lake Isle of Innisfree’, ‘Byzantium’, etc.) 또 다른 경우 그는 현실, 육체 등 지상적인 가치를 더 주장하기도 하였다. (‘A Dialogue of Self and Soul’) 그러므로 Yeats에게서의 경험이란 바로 위의 두 요소 즉 지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사이의 결승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Yeats 자신은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는 곳을 ‘gyre’라고 칭하며 이곳에서는 많은 대립적인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Richard Ellmann은 이러한 ‘gyre’를 많은 二元的인 對立 요소들 속에 들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The gyres, on the other hand, stand for the world of appearance, a world in which, as he says, ‘Consciousness is conflict’. Wedded

(3) Richard Ellmann, *The Identity of Yeats*, p.242.

(4) W. B. Yeats, *Essays and Introduction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61), pp.271~272.

(5) Giorgio Melchiori, “The Moment of Moments” in John Unterecker (ed.) *Y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3), p.35. (이하 Yeats 라고 약하겠음)

in antagonism, they symbolize any of the opposing elements that make up existence, such as sun and moon, day and night, life and death, love and hate, man and God, man and woman, man and beast, man and his spiritual counterpart or 'daemon'; on a more abstract level, they are permanence and change, the one and the many,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the natural and supernatural worlds.⁽⁶⁾

상기한 갈등의 要素들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며 인간은 이 갈등에 대항하여 그것을 극복할 때(자아의 극복) 진정한 自我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진정한 자아 발견의 순간은 Yeats 자신이 언급한 바 'The Moment of Moments'이며 곧 갈등의 必要性에 의해 단절어진 Yeats 예술의 탄생의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相反 요소들의 對立에서 오는 갈등은 인간에게 공통적이긴 하지만 단지 시인은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대항하고 도전함으로써 갈등의 해소를 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詩人は 人間의 내면속에 잠재하고 있는 공통적인 인간존재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Yeats의 이러한 對立개념은 자신의 Mask 理論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경원적 자아(Self)에 도전하는 반자아(Anti-Self)를 찾아 또 다른 실재(Reality)를 확인하고, 이 Reality에 반하는 Anti-Reality를 정립하여 갈등을 해소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은 Hegel의 변증법적 과정과 유사하며, 끊임없는 갈등과 해소의 과정에서 詩人の 自我는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다.

惡의 自我와 이에 反하는 善의 自我(Mask)와의 투쟁, 自然世界와 상상세계의 대립등이 삶에 대한 詩人の 태도를 현실에 대해 도전적인 입장으로 되게 하며, 승리와 패배, 만족과 좌절의 연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풍부하게 형성된 Real-Self가 예술 창작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Yeats에게서의 現實이란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제공해 주는 예술 창조의 주요한 要素라고 하겠다. 그의 많은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대립적인 요소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된다면 그의 詩의 理解에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편의 Byzantium poetry 즉 'Sailing to Byzantium'과 'Byzantium'은 Yeats 예술이 그의 Real-Self가

풍부해짐에 따라 그의 인생관이 성숙한 지경에 이른 때의 시들로써 Yeats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태도를 미묘적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원숙한 경지에 이른 시인으로서의 Yeats의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詩의 배경을 염두에 둘 때 'Sailing to Byzantium'과 'Byzantium'은 동시에 Yeats 예술을 포괄적이며 총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III

Yeats는 Bysantium를 유럽 문명의 중심지이자 모든 철학 사상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이 도시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예술과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1907년 Lady Gregory와 처음으로 Ravenna까지 여행하였고, 1924년 부인과 함께 Sicily까지 여행한 일은 있었으나 실제로 오늘날의 Istanbul인 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Byzantium까지는 여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Byzantium poetry에서의 Byzantium이란 실제의 지리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Yeats의 상상속에 그려진 또 하나의 'mosaic'인 것이다. Yeats가 동경한 것은 현대의 Istanbul이 아니라 고대의 찬란한 文化의 중심지였던 Byzantium인 것이다.

Yeats는 1890년대부터 거의 일생동안 예술적 경험을 통하여 Byzantium를 자신의 상상속에 꽃핀 황금의 도시로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의도는 자신의 저서 *A Vision*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I think if I could be given a month of Antiquity and leave to spend it where I chose, I would spend it in Byzantium a little before Justinian opened St. Sophia and closed the Academy of Plato. I think I could find in some little wine shop some philosophical worker in mosaic who could answer all my questions, the supernatural descending nearer to him than to Plotinus even, for the pride of his delicate skill would make what was an instrument of power to Princes and Clerics and a murderous madness in the mob, show as a lovely flexible presence like that of a perfect human body.⁽⁷⁾

(6) Richard Ellmann, *The Identity of Yeats*, p.153.

(7) *A Vision*, p.279, Recited from T.R. Henn, *The Lonely Tower* (London and New York; Methuen & Co. Ltd, 1965), p.220.

Byzantine 예술의 특징은 종교적, 신비적 성격과 더불어 단순한 외형의 비례나 조화에서 발생된다고 보기보다는 내적인 위대한 精神의 발취라고 간주하는 데 있다. 內的인 감정, 종교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보다 색채의 효과를 이용하였으므로 건축을 비롯하여 작은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색채 예술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 호화로운 취향의 교회 예술은 궁정 예술로 확대되고 서유럽 전체에 기대한 영향을 주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문중하고 별다른 정식이 없는 이들 종교 건물의 내부는 모자이크, 대리석, 금, 은세공, 엄석돌등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었으며, 시각적인 지상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고대의 양식과는 달리 정신적인 눈에 반영되는 초자연적, 종교적 이념, 영적인 존재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모자이크 미술은 藝術과 自然사이의 對此를 매우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일견 自然을 否定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Yeats는 특히 이 모자이크 형식들을 통해서 변화, 부패, 죽음을 초월하여 더 영구히 지속되는 지혜,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영구성이 지극히 완벽하게 표현된 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D. J. Gordon과 Ian Fletcher는 이렇게 형성된 Byzantine 예술이 현대의 예술가 Yeats에게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symbol, then, expresses the permanence of the artist in the perfection of his artifice; but it contains more than this, for Byzantium, at its highest point, represented for Yeats a civilization in which all forms of thought, art, and life interpenetrated one another, and where the artist "spoke to the multitude and the few alike."⁽⁸⁾

'Sailing to Byzantium'에서의 Byzantium은 모든 죽어가는 世代들(dying generations)이 그들의 官能의 음악에 취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理智의 세계이자 동기에 자연적 존재에서 벗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술적인 황금의 형상이 되어 영원의 至福을 누릴 수 있는 神聖한 世界였다. 이 예술적 기교와 영원의 세계는 'Byzan-

tium'에서 죽음과 生의 汚穢이나 험기로부터 淨화된 現象世界, 인간의 고뇌의 바다 건너에 존재하는 불멸과 再生의 세계로 심화되고 있다. 즉 'Sailing to Byzantium'이 정신의 나라를 위한 追求라면 'Byzantium'은 生을 초월한 理想的 상대의 표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Byzantine 예술이 Yeats 예술에 부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두 편의 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감상하기로 하겠다.

Ⅶ. 'Sailing to Byzantium'

Ⅶ-1.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The young
In one another's arms, birds in the trees
—Those dying generations—at their song,
The salmon-falls, the mackerel-crowded seas,
Fish, flesh, or fowl, command all summer long
Whatever is begotten, born, and dies.
Caught in that sensual music all neglect
Monuments of unaging intellect⁽⁹⁾

제 1 연에서 묘사되고 있는 세계는 젊은이의 세계, 육체와 관능의 세계, 즉 動物에게는 산란기에 속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 세계는 생성과 변화만 존재하는 自然世界일 뿐 영원의 세계는 아니다. 이 속에서 人間(Yeats를 포함한 모든 시인, 예술가는 물론)에게 필연적인 노쇠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늙은 예술가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에서의 젊은이들은 'Whatever is begotten, born, and dies.'라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쇠잔해 가는 육신에 대한 애달음과 영원에 대한 갈망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예술가는 Yeats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옛 Byzantium에서 자신과 꼭 같은 고뇌를 경험했을 "a poet of the Middle Ages"⁽¹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기에 예술가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찌게 할 수 있는 이상향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Ⅶ-2. An aged man is but a paltry thing,
A tattered coat upon a stick, unless
Soul clap its hands and sing, and louder sing

(8) D. J. Gordon and Ian Fletcher, "Byzantium" in *Yeats*, p.136.

(9)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 Co., Ltd., 1961), pp.217~218. (이하 모두 이 책에서 전역함)

(10) Curtis Bradford, "Yeats's Byzantium Poems: A Study of Their Development", in *Yeats*, p.94.

For every tatter in its mortal dress,
Nor is there singing school but studying
Monuments of its own magnificence;
And therefore I have sailed the seas and
come
To the holy city of Byzantium.

제 2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향을 찾아서 갈등을 해소하고 예술작품 즉, 'monuments of unageing intellect'를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가가 Byzantium으로의 항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육체적 욕구는 인간의 内部에 항존하고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藝術作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술가로부터 탈취한다. 그러나 'sensual music'을 포기한다는 것만으로 예술가는 자신이 바라는 정신적 安定을 얻거나 영원한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없다. 시인은 이런 상태의 노인을 단지 'a paltry thing'이나 'a tattered coat upon a stick'에 비유한다. 즉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아서 육체가 쇠잔하면 마치 낡은 옷과 같이 갈기 갈기 찢어지는 것을 영혼이 좋아하면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손뼉치고, 소리 높여 영혼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노인은 단지 험웃을 걸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늙었다는 사실만을 한탄하는 단순한 'an aged man'은 차라리 순간적인 쾌락에 젖어 있는 'the young in one another's arms'보다 나을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육체의 노쇠를 보상할 만한 어떤 것을 추구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것은 곧 영원한 生命을 지니게 될 예술작품으로써, 이것은 육체적인 갈등에서 벗어난 'soul'이 자신의 업적을 찬양할 때만이 가능하다. 영혼이 이것을 노래하고 환희에 찰 때 육체의 노쇠는 보상되고 영원한 삶을 위한 재생(Reincarnation)이 약속된다. 그러나 이 영혼의 찬가는 현실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영혼의 찬가를 노래할 'singing school'은 어디에 존재하며 'monuments of its (soul's) own magnificence'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곳은 아마 가장 고귀하며 모든 시간적 파멸로부터 격리되어 육체의 유한성과는 무관한 곳일 것이다.

그러므로 Yeats는 영혼의 위대함을 체득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이상향의 도

시 Byzantium으로의 항행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의 갈등을 해소하고 영혼의 완벽함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Byzantium으로의 항행은 그러므로 현실 극복을 위한 상징적인 여행인 것이다.

이곳은 모든 藝術家들이 全人을 위한 예술, 전체를 위한 예술을 창조하며 단지 하나의 image(Unity of Whole Being)만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Yeats 자신은 Byzantium에서의 예술이 "impersonal"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 think that in early Byzantium, maybe never before or since in recorded history, religious, aesthetic and practical life were one, that architect and artificers—though not, it may be, poets, for language had been the instrument of controversy and must have been grown abstract—spoke to the multitude and the few alike. The painter, the mosaic worker, the worker in gold and silver, the illuminator of sacred books, were almost impersonal, almost perhaps without the consciousness of individual design, absorbed in their subject-matter and that the vision of a whole people. (11)

Ⅳ-3. O sages standing in God's holy fire
As in the gold mosaic of a wall,
Come from the holy fire, perne in gyre,
And be the singing-masters of my soul.
Consume my heart away; sick with desire
And fastened to a dying animal
It knows not what it is; and gather me
Into the artifice of eternity.

제 3연은 기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그가 얻게 될 'the artifice of eternity'를 기대하면서 Byzantium의 현인들에게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곳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영혼의 찬가를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고 Byzantium의 현인들은 곧 자신의 'singing masters of soul'이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병들은 육체적 고뇌도 모두 소멸되고 'dying animal'에 구속되었던 육체의 욕구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Yeats는 이 항행에 의하여 그가 영원히 정진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the artifice of eternity'에 몰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연에서의 神은 現世的인 의미에서의 神

(11) *A Vision*, p.280. Recited from *The Lonely Tower*, p.221.

이기보다는 오히려 Yeats가 간구해 마지않던 藝術的 完成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Byzantium이란 곳이 현세의 고뇌에 몸부림치는 인간을 위한 곳이라기 보다는 영혼의 웅대한 기념비(monuments of its(soul's) own magnificence)를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Byzantium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감상(sentimentality)를 용납하지 않으며 의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의미의 예술이 아니라 전체로서의(Whole Being) 예술, 즉 "impersonal art"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Yeats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멸시켜 영원한 예술작품에 同和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현세적인 대립 요소들을 내포한 'gyre'가 일체의 地上의인 경험을 예술이란 영원한 실체로 변형시키는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IV-5. Once out of nature I shall never take
My bodily form from any natural thing,
But such a form as Grecian goldsmiths make
Of hammered gold and gold enamelling
To keep a drowsy Emperor awake;
Or set upon a golden bough to sing
To lords and ladies of Byzantium
Of what is past, or passing, or to come.

마지막 연에서는 정신적 인정을 얻은 예술가가 다시는 유한한 자연 상대로의 복귀를 포기한다. 즉 육체적인 재생을 포기하고 정신적인 원성(spiritual reincarnation)을 추구하는 것이나, 육체적으로 유한한 'what is begotten, born, and dies'의 세계를 포기하고 육신을 초월한 'What is past or passing or to come'의 영원한 시간 세계를 노래하는 '황금의 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영혼은 새로운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육체적 고뇌, 욕망에 예속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육체적 노쇠는 이미 망각된지 오래이고, 노쇠가 초래한 육체적 무능함은 좀 더 새롭고 강력한 정신적 힘으로 대체되어 영혼은 마침내 'the artifice of eternity'에 정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yzantium의 '황금의 새'가 노래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한 時間이며 세 1연에서의 'those dying generations'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V. 'Byzantium'

V-1. The unpurged images of day recede;

(12) T. R. Henn, *The Lonely Tower*, p. 229.

The emperor's drunken soldiery are abed;
Night resonance recedes, night-walkers'
song

After great cathedral gong;
A starlit or a moonlit dome disdains
All that man is,
All mere complexities,
The fury and the mire of human veins.

(Collected Poems pp. 280-281)

제 1연에서 우리는 한 밤중에 울려 퍼지는 죽음의 부름을 상징하는 듯한 대성당의 종소리를 따라 낮의 어수선하고 잡다한 불결한 實象들과 환락에 겨워 흥청대며 거리를 쓰다니다면서 밤을 소란스럽게 하던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양재가 잠드는 궁궐의 등근 天井이 모든 인간적인 것, 잡다한 현세의 일과 일간의 빗줄 속에서 숨쉬는 분노와 모욕을 경멸하는 듯 달빛과 별빛 속에서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정적의 古都를 연상할 수 있다. 이 연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image는 밤과 낮의 image들이다. 낮의 대상물은 상상력의 불에 의하여 정화되지 않은 대상물임에 비해서 淨화된 한밤의 상상적 image들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낮은 의식적인 세계이며 밤은 잠재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있긴 하지만, 두 image가 나타내는 것은 外面世界, 行動世界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똑같이 폐타적이고 퇴폐적이다. T. R. Henn은 여기서 사용된 image들이 정신적(psychic)편을 나타내기 보다는 Neo-platonic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mages' are, I think, used not in the psychic, but in the Neo-platonic sense; they are the dross-covered reflected shapes of reality that fade as night approaches and mind grows strong again. They recede, with the long closing stress, growing fainter in the distance. The soldiers of the great Emperor are drunken, and that is the ironic paradox of empire. (12)

그러므로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친성의 도시 Byzantium에서 모든 인간적인 열정의 찌꺼기가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밤중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starlit or moonlit dome'은 自然을 극복한 초자연적인 상태로써 경멸의 대상인 血氣와 汚辱을 말끔히 씻어버린 純화된 자아

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황제의 天井은 하늘이고 또한 완성이며 自然의 世界, 낮의 세계 열정과 동요의 세계에 대립되는 것이다.

'Byzantium' begins with the Emperor's dome. This, like the dome of Santa Sophia, is Heaven, perfection, Eternity, a reversal of Shelley's "dome of many-coloured glass," opposed to the natural world, the world of daylight, of passions, and flux, that is struck through by the liturgical gong, and intimation of a transcendent order.⁽¹³⁾

Ⅴ-2. Before me floats an image, man or shade,
Shade more than man, more image than a shade;
For Hades' bobbin bound in mummy-cloth
May unwind the winding path;
A mouth that has no moisture and no breath
Breathless mouths may summon;
I hail the superhuman;
I call it death-in-life and life-in-death.

제 2연에서는 궁전의 벽과 마루의 황금 mosaic에 그려진 초인간적인 상태에 있는 形象들이 自然에서 벗어날 때의 상황이 그려져 있다. 즉 시간성을 초월한 밤의 세계가 주는 분위기를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詩人은 사람인지 유행인지 구별 못할 형상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떠다님을 목격하는 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감지하는 제 형상들의 대립적인 요소들, 즉 二元的인 특징이 구별되지 않는 경진 상내의 체감을 의미한다. Richard Ellmann은 이러한 경감을 다음과 같이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다.

Hades' bobbin is the soul, which comes from the underworld and eventually returns there until its rebirth. In life it winds up the mummy-cloth of experience, a funereal term used because in the poem life is paradoxically regarded as a surrender of the soul's freedom and therefore as a kind of imprisonment or death.⁽¹⁴⁾

그러므로 지하계에 들어온 영혼은 운명의 실패에서 경험이란 壽衣를 풀 때 순수한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인은 죽음

속에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삶 속에서도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초인간적인 존재를 인간의 한계성 밖에 존재하는 'death-in life and life-in-death' 상태에서 찾고 있다.

Ⅴ-3. Miracle, bird or golden handiwork,
More miracle than bird or handiwork,
Planted on the start-lit golden bough,
Can like the cocks of Hades crow,
Or, by the moon embittered, scorn aloud
In glory of changeless metal
Common bird or petal
And all complexities of mire or blood.

제 3연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통해 具現된 초인간적인 존재를 포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표현된 예술의 극치인 초인간적인 형상이다. 이 造形된 새는 악령을 쫓아내고 再生을 부르는 소환자인 지하계의 수탉처럼 지상 세계의 유한한 생명체들을 큰 소리로 조소하고 있다.⁽¹⁵⁾ 人間の 노력으로 이룬 예술품의 영구성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였다가 사라지는 자인계의 생명체의 유한성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별이 비친 황금 가지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존재하며, 그 가지 위에 앉은 황금새와 더불어 예술의 기교와 예술의 영속성을 상징하고 있다. Yeats는 1937년 7월 3일 "My Own Poetry"라는 제목으로 펴낸 방송 강연에서 이 황금의 새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I speak of a bird made by Grecian goldsmiths. There is a record of a tree of gold with artificial birds which sang. The tree was somewhere in the Royal Palace of Byzantium. I use it as a symbol of the intellectual joy of eternity, as contrasted with the instinctive joy of human life.⁽¹⁶⁾

여기서 우리는 Yeats가 자신의 'golden bird'와 'common bird' 사이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Richard Ellmann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꼭 짚어주고 하겠다.

Since in this poem he accepts reincarnation, he is distinguisheing here between the birds that sing the common strain of the continuing cycle of human lives and those that scorn

(13) D. J. Gordon and Ian Fletcher, "Byzantium" in *Yeats*, p.136.

(14) Richard Ellmann, *The Identity of Yeats*, p.220.

(15) Yeats는 Eugénie Strong의 *Apotheosis and After Life*에서 로마시대의 모퉁이에 새겨진 수탉이 'herald of rebirth'의 역할을 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일었다. Richard Ellmann, *The Identity of Yeats*, p.220.

(16) John Unterecker(ed.), *Yeats*, p.95.

the cycle and sing only of escape from it; here were the two directions of his own art. (17)

V-4. At midnight on the Emperor's pavement
flit
Flames that no faggot feeds, nor steel has
lit,
Nor storm disturbs, flames begotten of
flames,
Where blood-begotten spirits come
And all complexities of fury leave,
Dying into a dence,
An agony of trance,
An agony of flame that cannot singe a
sleeve.

제 4 연에서 미침내 시인이 찾고 있던 정신적 美가 구체화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우선 여기서의 불길은 살아있는 존재인 금세공인들이 금을 녹이고 망치로 때려서 형상을 빛는 데 필요한 대강간의 불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 상상의 불길은 그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키울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는 불길로서 현실적으로는 옷소매 한 자락도 태울 수 없을 정도로 무더하지만 예술가의 현세적인 삶의 복잡성과 고쳐볼 대위 버릴 힘을 지닌다. 그러므로 Ellmann 은 살아 있는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창조된 형상들은 이 상상의 불길을 통하여 단련되어 불멸의 예술 작품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8)

'Agony of flame'은 일본의 Nōh(能)극인 Motomezuka의 내용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연극에서 한 소녀는 자신의 피 때문에 영원한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한 승려가 그녀에게 만일 그녀가 그 불길의 실체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불길이 그칠 것이라고 말해 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불길의 실체를 믿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고뇌의 불길 속으로 흡수되며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불길에 의해서 淨化된 상태를 우리는 Yeats가 'Byzantium'을 쓰기 2년전 *A Vision*의 개정판을 위한 메모에서 밝힌 바로부터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At first we are subject to Destiny... but the point in the Zodiac where the whirl becomes a sphere once reached, we may

escape from the constraint of our nature and from that of external things, entering upon a state where all fuel has become flame, where there is nothing but the state itself, nothing to constraint it or end it. We attain it always in the creation or enjoyment of a work of art, but that moment though eternal in the Daimon passes from us because it is not an attainment of our whole being. Philosophy has always explained its moment of moments in much the same way; nothing can be added to it, nothing taken away; that all progressions are full of illusion, that everything is born there like a ship in full sail. (19)

피의 정령들, 즉 본능에 묶인 정령들은 춤을 통하여 정화된다. 원래부터 춤은 정령들에 의해 수행되던 정화 의식으로서, Yeats의 고뇌의 무아경으로 들어가는 춤은 천정위에 모자이크로 생생하게 그려진 의식적인 춤의 불멸성을 표현한 것이다.

'Dying into a dance', 'An agony of trance' 등의 상호 모순되는 語法(oxymoron)을 통하여 Yeats는 예술가가 경험적인 현실에서 자기 형상을 탈피하여 불멸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 갈 때의 흥분과 두려움 앞에서 自我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뇌에 찬 정신적 투쟁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V-5. Astraddle on the dolphin's mire and blood,
Spirit after spirit! The smithies break the
flood,
The golden smithies of the Emperor!
Marbles of the dancing floor
Break bitter furies of complexity,
Those images that yet
Fresh images beget,
That dolphin-torn, that gong-tormented sea.

일반적으로 바다는 인생과 恨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능을 지닌다. 官能에 의해 지배되는 젊음의 나라를 떠나 정신적인 삶의 상징인 Byzantium으로 항행함으로써 성취된 일시적 'Unity of Being'은 이곳 Byzantium에서 일면 相反되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詩의 서두에서 淨化되지 못한 형상들은 달빛 비친 'dome'으로 상징되는 淸淨한 정신에 흡수된다. 황금의 세와 하계의 소환자

(17) Richard Ellmann, *The Identity of Yeats*, pp. 220-221.

(18) *Ibid.*

(19) *Ibid.* p. 221.

‘cock’가 인도하는 곳은 Yeats 예술의 천국이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강력한 상상은 죽은 영혼들이 돌고래의 등을 타고 관능의 바다를 헤엄쳐 간다는 것이다. 인간의 유기적 구조와 똑같은 혈기와 오욕의 돌고래를 탄다는 사실은 시인이 단지 순수한 정신 세계에만 있지 않고 인간적인 情調에 이끌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시인은 급속을 다루는 대장쟁이들이, 즉 예술가들이 욕정의 潮水를 넘어 예술의 세계 Byzantium 을 지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도용 마루의 대리석, 차갑고 단순한 아름다움은 압담한 형상들이 또 다른 새로운 형상들을 배태하는 복잡한 분노의 형상들을 부수어 버린다. 차거운 대리석 마루위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이 좁은 복잡한 인간사, 현상세계의 열정의 혼수를 부수는 데 도움은 주지만 결국 시인은 감각적인 생을 Byzantium 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듯하다. 즉 ‘that dolphin-torn, that gong-tormented sea’란 시인이 이끌리는 인간의 열정을 나타내는 세계이다.

시의 서두에서 보인 오욕의 간헐 세계가 가지는 산란의 image 에 대하여 시인이 가졌던 인식은 이제 경이로 바뀌고, 불완전하고 淨化되지 못한 형상들에 대항된다. ‘Sailing to Byzantium’에서 시인이 자신을 物質적인 것의 영구하고 아름다운 형식에 同化시킴으로써 육신을 초월하여 승리했다면 ‘Byzantium’에선 그 靜적인 단정에서 벗어나 전에는 그를 두렵게 했던 그 자체의 ‘무형의 위협’을 상상력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Yeats 의 이러한 귀결을 Ellmann 은 그가 완전한 순간의 시인이 라기 보다는 性에 의하여 깃고 시간에 의하여 고통받는 현세라는 바다의 시인으로서, 자신의 생을 예술을 위하여 行動으로부터 멀리하려 하지만 또 한편 행동으로 복귀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는 二律背反性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⁹⁾

Ⅵ

1930년에 쓴 자신의 일기에서 Yeats 는 ‘Byzantium’을 쓰기 위한 구상을 밝히고 있는 데, 우리는 이 일기를 통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對立的인 요소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Yeats 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19) *Ibid.*, p.222.

(20) *Explorations*, p.290. Recited from T.R. Henn, *The Lonely Tower*, p.22.

Subject for a poem. April 30th.

Death of a friend. To describe how mixed with one's grief comes the thought, that the witness of some foolish act or word of one's own is gone.

Describe Byzantium as it is in the system towards the end of the first Christian millennium. A walking mummy. Flames at the corners where the soul is purified, birds of hammered gold singing in the golden trees, offering their backs to the wailing dead that they may carry them to paradise.

These subjects have been in my head for some time, especially the last.⁽²⁰⁾

Yeats 는 걸등이 항존하는 現實에서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意志로 대항함으로써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모색하는, 다시 말하면 현실 극복의 자세로 詩作에 임하고 있다. 그것은 곧 육체와 정신, 현실적인 것과 영원한 것 등의 대립적인 요소를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 해소하고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초기시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詩世界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현실에 도전했고 육체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을 때(가신의 문제를 포함해서) 필연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게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죽음의 깊이를 인식하면 할수록 영혼의 본질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되었던 것이다. 위의 두 시는 그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만년의 나이에 쓴 각주들모써 현실의 극복을 통해 영원한 예술을 성취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가 Byzantine Art 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실상은 생과 死의 모호성, 즉 죽음에 의해서만 完成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와 변함없는 미의 세계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곧 ‘death-in-life’ 상태 보다는 ‘life-in-death’를 선택함으로써 예술과 人生의 完成을 꾀했던 것이다. 육체적인 노쇠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면 그는 정신적인 힘의 영속화를 통해 그것들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自然속에서 육체를 피할 때까지 양고(간동의 회피나 다짐) 자연속에 육체를 과감히 부딪침으로써 정신적인 노쇠나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다.

Richard Ellmann 이 Yeats 는 그의 詩를 통하여

자신의 예술의 기능, 즉 생을 찬양하는 기능과 생을 초월한 초인간의 상태를 찬양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²¹⁾라고 말한것은 바로 이러한 Yeats의 모습을 두고 언급한 것일 것이다.

詩의 image가 자라는 곳은 純粹한 정신세계이며 그 image의 原本은 혼합된 경험세계이기 때문에 詩人は 藝術의 完成을 위하여 전적으로 本能의 세계, 現實의 世界, 경험의 세계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Yeats는 行動의 세계와 理想의 세계가 팽팽한 긴장을 이룰 때 더욱 더 좋은 詩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술에 전념하기 위하여 詩人は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뇌의 불길의 연마를 거쳐 경험세계 즉 생명의 세계를 떠나지만 곧 다시 심의 세계로의 복귀를 꿈꾸는 것이다. 이러한 內的인 갈등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영원함을 갈망하는 人間의 내적 欲望이 예술가에 있어서의 예술창조의 원동력이며 Yeats는 끊임없이 이러한 내적인 힘을 통하여 시적 창조 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또 그 범위를 넓혀간 시인이라고 하겠다.

Bibliography

A. Works by W.B. Yeats

A Vision. London: Macmillan & Co., Ltd.,

1937.

Collected Poems. London: Macmillan & Co., Ltd., 1961.

Essays and Introduction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61.

B. Criticism

Bradford, Curtis. "Yeats's Byzantium Poems: A Study of Their Development"

Gordon, D. J. and Fletcher, Ian. "Byzantium" Melchiori, Giorgio. "The Moment of Moments"

C. Critical Works

Ellmann, Richard. *The Identity of Yeats*. London: Faber and Faber, 1954.

Henn, T. R. *The Lonely Tower: Studies in the Poetry of W. B. Yeats*. London: Methuen, 1965.

Unterecker, John. *A Reader's Guide To W. B. Yeat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_____. ed. *Yea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3.

(21) Richard Ellmann, *The Identity of Yeats*, pp. 222~223.